



## 부부이야기

김성녀/연극인

**우**리는 독신주의자였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내 독신의 이유였고, 그는 ——— 가난한 연극과 결혼했다는 것이 독신의 변이었다. 두 독신주의자의 첫 만남은 그의 모든 것인 연극으로 이루어졌다. ‘한네의 승천’이란 음악극이었다. 우린 그렇게 만났다. 일년 후 손진책, 김성녀는 주의의 놀림과 함께 독신을 버렸다.

손진책에게 연극은 인간구원을 위한 기도이며 자신은 하나의 사제이다. 그의 기도는 늘 사사롭지 않고 사회를 깨우치고 개선시키려는 도움이 되는 공익성을 띠고 있다.

세익스피어나 전통연회, 음악극, 정극, 실험극 어느 무대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연극작업은 독립투사처럼 비장하였고 진지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부모로부터 재능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아 그 유산을 바탕으로 연극, 국악, 방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횡무진 뛰어 군자금을 마련하는 손진책의 훌륭한 동지였다.

우린 경기도 양주에 동지를 틀었다. 모든 연극인들의 꿈인 전용극장을 만든 것이다. 단원들과 합숙하며 마음껏 뿔 수 있는 보금자리 “미추산방.”

외길인생의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는 점점 고집스러웠다.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펼치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다. 80명의 단원과 그 보금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현실감각이 전혀 없다.

유명스타를 쓴 일회성 돈벌이도 관객의 귀와 눈을 의식한 아합성 작품도 그에겐 통하지 않았다.

초지일관 관객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작품들은 때론 나를 지치게 한다. 그리고 그 지침은 그 동안 잊고 있던 나의 이기심을 부추긴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연극을 하고 싶다.

관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 나만의 작품을 하고 싶다. 단원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의 재미도 맛보고 싶다. 등등 끊이지 않는 소망과 함께 꿈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눈물겹게 보이는 것은 얼굴의 주름살 탓일까? 때가 긴 탓일까? 그러나 나의 이런 작은 반란은 그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다.

연극을 왜 하는가? 그에게 물어 보았다. 느닷없이 철학적인 질문이 어색하다는 듯이 한참 보더니 씩 웃으며 “살아있는 의미지!”라고 대답한다.

살아있는 의미! 그와 사는 것이 아니라 연극과 함께 살며 느낀 것은 일상의 재미는 잃었지만 무대 위에서 다양한 삶의 희열을 맛보았고 배고픈 연극을 하면서도 굶지 않고 남만큼은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남만큼 살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달려온 눈물과 땀의 세월이 있었다.

그는 따뜻한 남편은 못되지만 아침밥도 손수건도 챙겨주지 못하는 나에게 투정하면 안 하는 고마운 남편이다. 그러나 가족보다 단원을 더 챙기는 서운한 남편이기도 하다. 술술 바가지줄 끊는 아내가 그를 외롭게 할 때도 있었지만 아빠의 작품은 관객이 없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아들놈의 격려가 그를 살 맛나게 할 것이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불평을 하면서도 동조를 하는 나는 역시 꽤 관참은 동지다.

연극을 왜 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건 왜 사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알게 모르게 그에게 전염이 된 것일까?

영원한 동지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다.